

# 타이거 우즈 “난 아직 죽지 않았다”

## 재활 거쳐 16개월 만에 필드 복귀... 내달 3일 ‘히어로 월드 챌린지’ 출전 예상

복귀전이 임박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자신감을 보이는 발언으로 화제다. 이런 가운데 외국의 베테랑 선수들은 올 시즌 우즈의 우승보다는 은퇴 확률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즈는 다음달 3일(한국시간) 바하마 뉴프로비던스 알바니골프장(파72·7302야드)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350만 달러)에 출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윈덤 챔피언십 이후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재활을 거쳐 16개월 만에 필드에 복귀한다. 히어로 월드 챌린지는 타이거 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대회다. PGA 투어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향후 대회 참가를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 가깝다. 우즈는 지난해 복귀가 예상됐지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불연 불참을 선언해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메이저대회 14승을 포함해 PGA 투어 통산 79승을 챙긴 우즈는 지난 2013년 8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우승을 끝으로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40대에 접어든 우즈가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우세한 가운데 우즈 자신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

해졌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지난 28일 바하마에 도착한 우즈는 “난 아직 죽지 않았다”고 농담을 했다. 매체는 우즈가 바하마에 온 뒤 주말 동안 새 골프 클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했다고 전했다. 오랜 스폰서인 나이키가 더 이상 골프 클럽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우즈는 여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찾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같은 날 2017시즌 우즈가 우승할 확률보다 은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외국 베테랑 선수의 전망을 보도했다. 매체는 “글로벌 베테랑체인 북메이커가 진행 중인 베테랑에 따르면 우즈가 2017시즌에 우승할 것으로 보는 배당률이 +800인데 비해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배당률은 +33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퇴 가능성이 우승 가능성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은퇴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우즈가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수준의 기량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타이거 우즈는 다음달 3일(한국시간) 바하마 뉴프로비던스 알바니골프장(파72·7302야드)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총상금 350만 달러)에 출전이 예상된다.

한편 월드챌린지는 우즈를 포함해 세계 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열을 가린다. 정상금 선수 18명이 출전에 나올 동안 72 /김민근기자

## 전라북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성료

전라북도지사기 시군대학 테니스대회'가 지난 28일 27일 양일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북 14개 시군의 테니스 동호인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승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개최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테니스는 가장 현대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며 이웃과 함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북의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며 “평소 같고 뛰어난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맘껏 발휘하여 각 시·군의 명예를 드높여 주시고 상호 소통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축제 한마당을 펼쳐기를 바랍니다”라고 참가자를 격려했다. /김민근기자



## 정읍·고창·부안 청소년 농구대회 고창팀 우승

법무부 법사랑위원 고창지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7일 열린 '제8회 정읍·고창·부안 청소년 3:3 농구대회'에서 고창팀이 중·고등부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의 일환으로 치러진 이번 농구대회는 3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지역별로 중등부 2팀, 고등부 4팀 등 총 18개 팀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가운데 중등부 우승과 준우승에 고창군 2팀과 진안군이 각각 차지했으며, 마이웨이(정읍시), TNI(정읍시)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등부에서도 숭의(고창군)팀과 숭의(고창군)팀이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으며, 호남중(정읍시), 배영중(정읍시)팀이 공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포브스, “황재균 10년간 똥 베테랑·장타력 갖추고 있어”

### 2루수 공백 다저스, 고려할만한 후보 명단에 포함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메이저 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황재균(29)이 2루수를 찾는 LA 다저스가 고려할 만한 후보라는 현지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8일(한국시간) 2루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다저스가 고려할만한 후보들의 명단을 꼽으면서 황재균을 포함했다. 포브스는 “황재균은 KBO 리그에서 10년간 똥 베테랑이고, 장타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황재균이 10년간 통산 타율 0.286, 출루율 0.350, 장타율 0.43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재균은 지난해와 올해 장타력을 한껏 과시했다. 2015년 황재균의 OPS는 0.871에 달했고, 올해 OPS는

0.964였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황재균이 지난해 올스타전 홈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황재균은 올해 또다시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 리그 진출을 추진했던 황재균은 포스팅에 응찰한 구단이 없어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접어야 했다. 황재균은 지난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의 IMG 아카데미에서 메이저리그 20개 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쇼케이스도 실시했다. 올해 2루수로 똥 체이스 어틀리가 FA가 돼 대체 선수를 찾고 있는 다저스의 영입 1순위 후보로는 브라이언 도

저(미네소타 트윈스)가 꼽혔다. 포브스는 “만약 도저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는다면 남부 캘리포니아에 크리스마스 선물인 될 것”이라며 “도저는 다저스가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오른손 강타자고 건강할 뿐 아니라 내년 연봉과 2018년 연봉이 각각 600만달러, 9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도저 영입이 불발됐을 경우 앤드루 프리드먼 사장과 구단이 C~E 플랜을 준비해왔을 것이라고 전한 포브스는 영입 후보에 올랐지만 명단을 소개했다. 이 명단에는 황재균 뿐 아니라 로진 포시드(탬파베이 레이스), 세자르 에르난데스(필라델피아 필리스), 브랜던 필립스(신시내티 레즈), 이안 데스먼드(텍사스 레인저스) 등이 포함됐다. /김민근기자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황재균(29)이 2루수를 찾는 LA 다저스가 고려할만한 후보라는 현지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김민근기자

## 익산시청 펜싱팀, 김창한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 개인전 우승·단체전 준우승

최근 계동사에서 열린 제2회 김창한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업 최강팀의 면모를 보였다. 남자에예 개인전에서는 안성호 선수가 1위, 송재호 선수가 3위를 차지했고, 여자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최신희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여자 사브르 간판 김지연 선수는 프랑스 오를레앙 국제월드컵 펜싱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여자사브르 단체전에서 2위, 남자에예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익산시청 펜싱팀은 막강한 실력으로 개인전 단체전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남자 에페에서 권영준 안성호 송재호 선수, 여자 사브르에서는 김지연, 최신희, 황선아 선수 등 총 6명이 2017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맞았다. /익산=장영원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